

‘원스톱 영농 지원’ 본격 가동 ‘건강 100세 시대’ 기반 구축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준공... 미생물배양센터 신설 등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임실군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 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준공식을 개최하며 지역농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학습단체, 지역 주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했다.

새롭게 건립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는 신령면 대리 1243-1 일원에 총사업비 15,640백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5,652㎡, 연면적 3,553㎡의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완공됐다.

신청사는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지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상담과 교육, 영농 진단, 기술지원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영농 지원 체계’를 갖춘 것이 핵심 특징이다.

전문 상담실과 교육시설은 물론 농업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장비와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서비스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신청사와 함께 조성된 미생물배양센터는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용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전문시설이다.

지역 농가에 고품질 미생물을 지속



임실군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준공식을 개최하며 지역농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적으로 제공해 작물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존 청사에 비해 공간과 시설이 크게 확충되면서,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전문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육장, 학습단체 회의실 이외 최신 분석 장비를 갖춘 전문 병해충진단실 등은 농작물 피해, 병해충 원인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군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운영을

통해 △현장 지도 기능 강화 △농업인 상담 및 교육 내실화 △미생물자원 활용 확대 △영농문제 진단 지원 강화 등 농업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신청사 개청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과 교육을 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과 교육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임실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곳곳 희망나눔캠페인 동참 잇따라

남원시가 2026년 희망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덕과면 행복지센터는 2026년 희망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남원시 농업경영인회 이남규 회장이 ‘사랑의 밀가루’ 17포(20kg)를 기탁하고 이장협의회도 성금 150만원을 기탁해 왔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남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2일 산동면 남녀의용소방대(대장 이효선) 일동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아동복지를 위해 소중한 현금 30만원과 두툼미리 휴지 등 50여 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으며, 기부된 현금과 현물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효선 대장 외 대원 일동은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면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



습을 보면서 참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 선정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서순창농업협동조합이 사업 주체로 참여했으며, 지역 대표

작물인 콩의 생산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에 서순창농협은 콩 정선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등을 구축하여 생산부터 저장, 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콩 정선시설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상품성과 유통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신설되는 창고시설은 수확기 과잉물량 처리, 산패 및 품질 저하 방지,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콩 산업의 가공·판매 기반 역시 한층 안정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건강 100세 시대’ 기반 구축

순창군 적성면 체육관 준공...면민 생활체육·문화거점 역할 기대

순창군 적성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적성면 체육관’이 지난 11일 준공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적성면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준석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적성면 기관사회 단체장, 내외귀빈 등 200여 명의 군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준공식은 개회 및 내빈 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체육관 건립 사업은 2021년 1월 공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건축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지난날 25일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완료됐다.

총 31억 3천만 원이 투입되어 미세먼지와 폭염 등 변화하는 기후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건강 100세 시대’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최영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적성



면 체육관은 앞으로면민들의 생활체육과 면 단위 행사를 아우르는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될 것”이라며, “이곳에서면민들이 건강 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손준석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군수, 의장, 군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여한 테이프 커팅식을 끝으로 준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이 준공이 적성면의 새로운 활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귀뚜라미문화재단, 남원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

남원시는 지난 12일, 남원시청 1층 강당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 남원시 추천한 모범 학생 42명(대학생 8명, 고등학생 22명, 중학생 12명)에게 장학금 총 5천만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 모범으로 인정받은 남원시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여러분의 꿈과 전공 분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귀뚜라미그룹은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화 사업과 인재 육성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주민등록·인감 업무 발전 기여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2025년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제도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시군구 평가에서 임실군은 주민등록·인감 업무에서 높은 행정 역량을 보여 전국 우수기관 10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군은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인감·서명 확인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민원창구 운영시간 연장으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확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등록자료 정비 철저 △인감·서명 확인 제도의 체계적·정확한 관리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최승범 구급팀장
국회자살예방대응유공자선정



남원소방서는 최승범 구급팀장(사진)이 ‘국회자살 예방대응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난 11일 표창받았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자살 예방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연계, 현장 자살 시도자 응급처치 및 심리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최승범 팀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료들과 지역 유관기관 모두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자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 역할을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출동훈련·캠페인

순창소방서는 지난 12일 소방공무원 23명과 의용소방대원 50명 등 총 73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목표로 관내 상습정체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출동훈련과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순창시청과 공용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불시출동훈련, 소방통로 장애 요소 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해 지역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순창시장 공용주차장을 집결지로 지휘차·펌프차·구급차 등 6대의 소방차량이 실제 상황을 가정해 페레이드 방식으로 이동 과정에서 선두 차량이 군민에게 길 터주기 요령을 실시간 안내했고,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해 긴급차량 우선통행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단속하고, 소방통로를 침해하는 요소는 현장에서 곧바로 계도 조치를 실시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